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의 문체론적기능의 특성

리 명 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켜야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교육사업을 높은 과학적로 대우에 올려세울수 있으며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제10권 증보판 492페이지)

외국어교수에서 필수적인 언어자료로 되는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은 본문구성단위들인 문장과 단락, 문단 등을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논리의미적으로, 문체론적으로 맞물리면서 주려는 사상감정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통속적으로 나타내는데 이바지한다.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의 문체론적기능의 특성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볼수 있다.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의 문체론적기능의 특성은 첫째로, 작가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개의 문장들로 자기의 사상을 표현할 때 그 연관관계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명료하게 표현한다는것이다.

따라서 접속수단들은 복합문으로 구성된 두개이상의 진술구조의 문장과 여러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단락과 본문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다. 이때 필자는 여러가지 접속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양보, 조건, 대비, 대조관계를 통하여 보다 형상적으로 표현하게 된다.

례: While she planted her onions, yams, gourds, cassava, and bitter tomatoes, her son spent his days romping under the watchful eyes of the several old grandmothers who took care of all the children of the village who belonged to the first cafo, which included those under five rains in age. The boys and

girls alike scampered about as naked as young animals-some of them just beginning to say their first words. All, alike Kunta, were growing fast, laughing and squealing as they run after each other, around the giant trunk of the village baobab, played hide-and-seek, and scattered the dogs and chickens into masses of fur and feathers.

But all the children-even those as small as Kunta-would quickly scramble to sit still and quiet when the telling of a story was promised by one of the old grandmothers. Though unable yet to understand many of the words, Kunta would watch with wide eyes as the old women acted out their stories with such gestures and noises that they really seemed to be happening.

우의 실례에서 작가는 접속사 while, but, though를 리용하여 시간관계의 동시성과 대조관계, 양보관계를 뚜렷하게 나타내고있으며 여러가지 문장문체론적표현수법을 리용하여 글의 내용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우선 접속사 while를 리용하여 시간관계의 동시성을 나타내면서 어머니가 양과와 똑감자, 호로병박을 심는동안 아들이 할머니들의 감시밑에서 다른 애들과 숨박꼭질을 하고 짐승들을 쫓아다니는 모양을 축적법과 대구법을 리용하여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또한 접속사 but를 리용하여 온 별판이 좁다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마을할머니가 옛말을 들려주겠다고 하면 순식간에 모여들어 조용히 앉아 옛말이 시작

되기를 기다리는 모양을 우의 단락과 대조적으로 나타내고있으며 접속사 **though**에 의한 축적법과 생략법을 리용하여 나이가 너무 어려서 할머니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모양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다.

영어접속수단들을 어떻게 골라쓰는가에 따라 문장이나 본문의 표현적의미실현에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낼수 있다.

실례로 접속수단인 접속사 **and**를 쓸 때 문법적의미에서는 병렬관계로 분석되지만 론리의미적관계에서는 이러한 병렬관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순차나 조건, 결과관계에서 **so that**보다 미약한 의미로 쓰이는 것을 찾아볼수 있다.

례: Seeing the people's plight, he kneeled down and prayed to Allah—almost without sleep and taking only a few sips of water as nourishment—for the next five days. And on the evening of the fifth day came a great rain, which fell like a flood, and saved the village.

(사람들의 처지를 보고 그는 무릎을 꿇고 5일동안 거의나 자지도 않고 몇모금의 물만 마시면서 알라신에게 빌었다. 그리하여 5일째 되는 날 저녁에 장마때처럼 큰 비가 내려 마을을 구원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접속사 **and**는 두 문장을 론리의미적으로 연결하여 결과관계를 나타내면서 문장문체론적표현수법인 자리바꿈법실현에 참가하는 문장문체론적특성을 가지게 된다.

접속수단인 접속사 **and**는 어휘문법적수법에서처럼 병렬접속관계보다 순차관계, 약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것으로 하여 과학기술문체와 일반생활문체에서도 많이 쓰인다.

이와 상반되는 의미에서 접속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수단은 **but**로서 대조관계의 형

상적의미를 나타내며 문장과 그이상의 본문구성단위들에 대한 접속에 쓰인다. 그리고 **and**도 순차관계와 함께 대조관계의 접속적의미로 쓰이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례: In the city there are Arch of Triumph that is more magnificent than the Arch de Triumph in Paris,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the May Day Stadium, one of the biggest stadium in the world, and the magnificent and high Tower of Juche Idea that is capped with a torch. And that is not all.

(도시에는 빠리에 있는 개선문보다 더 웅장한 개선문이 있고 인민대학습당, 세상에서 제일 큰 경기장들중의 하나인 5.1경기장과 봉화를 띄이고 웅장하게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처럼 접속사 **and**와 **but**는 대조의 수법으로 쓰이면서도 류사한 자기 고유의 부분적수법이 있다.

그 쓰임유형을 보면 **but**와 **and**는 문장 내에서 부분과 주문, 문장과 문장, 나아가서 단락들사이의 접속관계에 자연스럽게 쓰인다.

입말체에서는 물론 글말체에서도 접속사가 보편적으로 쓰이고있다. 그것은 글구성의 련속성과 순차성을 유연하게 이루려는 필자의 문체론적요구가 입말체에서보다 글말체에서 더욱 절실히 제기되기때문이다.

례: Then the other grandmothers would pass among the children with bowls of freshly toasted beetles and grasshoppers. These would have been only tasty tidbits at another time of year, but now, on the eve of the big rains, with the hungry season already beginning, the toasted insects

had to serve as a noon meal, for only a few handfuls of couscous and rice remained in most families' store-houses.

(그러면 다른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새로 구운 딱장벌레와 메뚜기를 담은 공기들을 주었다. 이런것들은 다른 때라면 별식으로 되겠지만 장마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이미 기아의 시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지금은 불에 구운 벌레들을 점심상에 올려놓아야 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집들에는 여유식량으로 몇줌의 쿠스쿠스와 쌀밖에 없었기때문이었다.)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의 문체론적기능의 특성은 둘째로, 본문에서 문장이나 단락접속에 쓰이는 부사들이 논리적연관과 진술적의미표현실현에서 접속사보다 더 강한 의미로 실현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양태, 성질, 차례, 연결을 나타내는 부사 suddenly(갑자기), fortunately(다행히도), anyhow(하여튼), ultimately(종당에는), finally(마침내), besides(게다가), happily(행복하게도), again(다시), still(여전히), then(그러면), yet(아직) 등은 문장의 임의의 성분과 문법적으로 맞물림관계를 가지지 않고 외판성분으로 되어 진술단위들을 논리의미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진술내용의 표현성을 높여준다.

례: Then, suddenly, in the darkness, he heard the shrieks of some forest creature caught by some ferocious animal, and he thought about people catching other people. Also, in the distance could he hear the howling of hyenas—but rainy season or dry, hungry or harvest, every night of his life, he had heard hyenas howling somewhere. Tonight he found their familiar cry almost comforting,

finally, drifting off to sleep.

(그러다가 갑자기 어둠속에서 그는 맹수에게 잡힌 짐승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는 인간들에 대해 생각했다. 또한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히에나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장마와 가물, 기아와 수확의 시기, 일생의 모든 밤들에 그는 어디선가 히에나가 우는 소리를 들어왔다. 오늘 밤에는 귀에 익은 그 울음소리가 어쩐지 위안감을 주었고 뒤치락거리다가 마침내 소르르 잠들어버렸다.)

문장문체론적표현수법실현에 쓰이는 부사들은 이야기하려는 내용의 논리적연관과 진술내용의 순차적연결을 보장하면서 문체론적표현성을 실현한다.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의 문체론적기능의 특성은 셋째로, 글말체본문에는 문장문체론적접속을 위하여 관용어적표현구를 비롯한 단어결합에 의한 접속수단도 적지 않게 쓰이게 된다는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접속수단으로 쓰이는 관용어적표현구나 단어결합의 어휘적의미에 의하여 접속표현적연관을 논리의미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주면서 연관적의미가 뚜렷하고 명료하게 나타나게 한다.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으로 쓰이는 단어결합들은 앞뒤진술의 연관성, 순차관계, 진술의 구체화, 대조관계 등의 표현에서 특징적인것으로 된다.

례: You should, for example, take care to appear well-groomed and modestly dressed, avoiding the extremes of too elaborate or too casual attire. On the positive side, clothes may be a good leveller, putting you on a par with other applicants and requiring the interviewer to consider more important qualifications. On the other

hand, clothes which are too informal may convey the impression that you are not serious about this interview or that you may be casual about your work as well as your dress. Clothes which are too elaborate, too colourful, or too expensive suggest that you do not understand what behaviour is appropriate for the interview or that you are snobbish or frivolous.

(실례로 너무 요란한 장식을 하거나 너무 일상적인 옷차림은 피하고 단정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옷차림은 담화자가 그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더 중요한 자격을 알게 하는 훌륭한 자막대기이다. 다른 한편 너무 일상적인 옷차림은 이 면담에 그리 관심이 없으며 옷차림처럼 일에 관심이 적다는 인상을 준다. 지나친 장식을 하거나 요란하고 비싼 옷차림을 하는것은 어떤 행동이 면담을 하는데 적당한가도 모르며 자신이 속물이거나 경솔하다는것을 나타내는것으로 된다.)

우의 실례에서 필자는 for example, on the positive side, on the other hand로 문장들을 연결시키면서 옷차림이 면담의 성과를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문장문체론적표현수법인 축적법, 생략법, 열거법을 적용하여 하나하나 짚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면담을 진행할 때 어떤 형식의 옷차림을 해야 하는가를 잘 알게 하고있다.

접속수단으로 쓰이는 관용어적표현구나 단어결합은 그 어휘적의미의 구체성으로 하여 진술적의미들을 부사보다 더욱 감정 정서적으로 묘사하며 문체론적표현성실현에서 접속사나 부사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영어본문에서 접속수단의 문체론적기능의 특성은 넷째로, 접속수단이 문장문체에서 기본형태구조적표식으로 되며 영어본문에서 고유한 논리의미적 및 문체론적표현성실현에 참가한다는것이다.

례: Kunta had never realized how much he knew—but now and then Lamin asked something of which Kunta knew nothing at all.

“Is the sun on fire?” “Why doesn’t our father sleep with us?”

At such times, Kunta would usually grunt, then stop talking—as Omoro did when he was tired of so many of Kunta’s questions. Then Lamin would say no more, since mandinka home training taught that one never talked to another who did not want to talk. Sometimes Kunta would act as if he had gone into deep private thought. Lamin would sit silently nearby, and when Kunta rose, so would he. And sometimes, when Kunta didn’t know the answer to a question, he would quickly do something to change the subject.

(쿤타는 자기가 얼마나 알고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가끔 라민은 쿤타가 전혀 알지 못하는것에 대하여 물었다.

《해가 불타나?》, 《아버지는 왜 우리와 같이 자지 않나?》

그럴 때마다 쿤타는 너무나도 많은 자기의 질문에 지칠 때면 오모로가 그러했던것처럼 두덜거리다가 말을 멈추곤 하였다. 그러면 라민은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만딘카족의 가정교양이 말하고싶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기때문이었다. 때때로 쿤타는 마치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하곤 하였다. 라민은 가까이 말없이 앉아있곤 하였고 쿤타가 일어나면 자기도 일어났다. 그리고 때때로 쿤타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면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고 다른것을 하곤 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접속수단은 자기의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단락의 여러 위치에 놓여 상대적자립성을 띠는 언어요소와 언어적단위들사이의 차례를 순조롭게 연결하면서 자리바꿈법과 열거법 등

여러가지 문장문체론적표현수법실현에 참가하여 표현의 질을 높이고있다.

이처럼 접속수단은 영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을 의미적측면과 통신적측면에서, 구조적측면과 문체론적측면에서 접속시켜 본문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영어본문에 제시되는 접속수단의 특성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활용연습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높은 외국어실천능력을 갖춘 강성국가건설의 혁명인재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